

2024

# 우즈베키스탄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

1. 개요	4
가. 시장 전망	4
나. 주요 경제지표	5
2. '24년 주요 이슈 및 전망	6
가. '우즈베키스탄 2030' 전략 본격 추진	6
나. 다자·양자 무역협정 참여 노력	7
다. 러-우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교역환경 변화	9
라.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자원 효율화에 역점	11

##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4
2. 시장 분석	22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22
나. 교역	23
다. 투자	26
라. 프로젝트	27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29
가. 교역	29
나. 투자	32
다. 협력 유망 분야	34

## III 진출전략

---

1. PEST 분석	37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38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39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48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49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50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51

Chapter



---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



## 1 개요

### 가. 시장 전망

▣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를 비롯하여 ADB 등 여러 국제기관에서 발표한 '23년 우즈베크 경제성장률은 5%대이며 '24년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우즈베크의 대리 식품, 석유류 수출 증가 및 투자유치 확대 등을 근거로 '23년과 '24년 모두 경제성장률을 5.5%로 전망하고 있음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역시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률을 '23년, '24년 모두 6.5%로 예상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음



※ '23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재집권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2030' 전략을 본격 추진하면서, 러-우 사태 장기화 등 환경 변화 속 국제 경제협력과 제조업 육성 등 기존 경제성장 정책을 지속하며, 에너지 개발 및 효율화에 힘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가. '우즈베키스탄 2030' 전략 본격 추진

### ▣ '23년 우즈베키스탄 조기 대선 및 안정적 국정 운영 발판 마련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개헌안이 국민투표로 통과 (23.04.30) 되었으며, '23년 7월 9일 조기 대선을 실시하였음
  - '21.10월 재선에 성공, 제2기 대통령직을 수행 중이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남은 3.5년의 임기를 반납하고 조기 대선에 출마하였음
  - 안정적 국정운영으로 얻은 신뢰와 함께 교육시스템 개혁, 안정적 경제성장, 의료서비스, 환경보호 등의 주요 공약을 내세워 87.05%의 득표율로 재당선

#### 〈2023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선거 결과표〉



자료원 : www.yuz.uz

- 압도적 지지로 재당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다시 7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새 헌법에 따라 연임할 경우 최장 14년 집권의 발판을 마련함.

#### ▣ ‘우즈베키스탄 2030’ 전략(’23.08.01 발표) 추진

- 우즈베크 대통령 행정실,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건설을 위한 5가지 방향과 100가지 목표를 포함하는 ‘우즈베키스탄 2030’ 전략 발표, ’24년부터 본격 추진 전망
  - 동 전략 실행을 위해 2,522억 달러가 할당될 예정이며
  - 주요 방향은 아래와 같음 (상세내용 후술 참조)
    - ① 국민의 요구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교육, 의료,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 ②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 복지 보장,
    - ③ 수자원 절약 등 국민에게 편리한 생태학적 조건 마련
    - ④ 국민을 섬기는 공정하고 현대적 국가 건설 및 법치주의 보장
    - ⑤ 안전과 평화 유지, 개방적이고 실용적, 능동적 대외정책, 안보 및 국방 강화

## 나. 다자·양자 무역협정 참여 노력

#### ▣ WTO 가입 위한 법률 개정 등 실질적 노력 경주

- ‘우즈베크 WTO 가입 가속화’를 위한 대통령령 승인 및 특별대표 임명(’23.6.6)
  - 대통령 행정실 소속 아지즈 우루노프를 WTO 특별대표로 임명
  - 회원국과 협상 진행, WTO 사무국과 실무 연락 지속 등의 임무 수행
- 우즈베크의 일부 법령과 WTO 규범의 합치를 위한 대통령령 발표(’23.8.15)
  - ‘WTO 협정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입법의 조화를 위한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발표, ’24년 1월부터 발효하여 법령 개정이 시작될 예정
  - 이에 따라 우즈베크 일부 무역 관련 법령은 WTO 규범에 합치되도록 개정되어야 함

## 〈일부 무역법령 개정 계획〉

2024년 1월 1일부터

- 수출입 시 부과되는 관세율 통일
- 특정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절차 면제 제도 폐지
- 의무적인 우즈벡어 라벨링 부착 면제
- WTO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운송비 보조금 지급 시스템 구축

2025년 1월 1일부터

- 의약품 및 의약품 수입에 대한 통관 수수료 폐지 등

자료원 : 무역관 요약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WTO 가입을 중장기 발전 최우선 과제로 제시
  - '23년 9월 뉴욕에서 열린 UN 총회에서 중장기 발전 전략의 핵심 목표로 WTO 가입을 강조하며 경제 자유화를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조건이라 언급

### ▣ 양자 및 지역 경제협력 추진

- 우즈베키스탄-튀르키예 양자 경제협력 강화
  - '국제조약 승인'에 대한 대통령령(No.PP-65)을 채택하여, 에르도안 대통령 방우 계기 서명('22.3.29)한 우즈베키스탄-튀르키예 특혜무역협정을 승인('23.2.22)
  - 동 협정에 따라 양국은 상호 관세 특혜, 유리한 무역 조건 마련 등 노력
- 튀르크어권국가기구(OTS) 회원국 간 통관 간소화 추진
  - '22.11월 제1차 OTS 정상회의 계기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튀르키예 간 체결된 관세 간소화 협력 협정 승인('23.6.21)
- 한-우즈벡 무역협정 협상 지속 추진
  - '21년 1월 협상을 개시한 양국은 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 경주 중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국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23.9.12)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은 폴리브덴과 텅스텐 등 희소금속의 원활한 공급을 기대
  - \* TIPF : FTA 추진이 당장 어려우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와 관세양허를 제외한 무역·투자·공급망·에너지 등 포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우리 산업부의 새로운 협력 프레임

## 다. 러-우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교역환경 변화

### ▣ (물류 변화) 중앙아 우회 러시아향 물류 증가로 우즈베크향 물동량 크게 증가

- 미국과 유럽의 대러제재 강화로 러시아 해운 루트가 약화되어 TSR, TCR에 러시아향 물류 집중, 중앙아 리드타임 연장 및 운임 상승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 비교〉

운임지수	2022.01.07. 기준운임	2023.03.10. 기준 운임	증감률
평균지수	5,109.6	906.55	-82.3
서유럽(\$/20'F)	7,777	865	-88.9
지중해(\$/20'F)	7,529	1,589	-78.9
미주서안(\$/20'F)	7,994	1,163	-85.5
중동(\$/20'F)	3,790	878	-76.8

자료원 : Shanghai Shipping Exchange, SCFI

- 팬데믹 이후 물동량 폭증으로 '22년 초 최고치였던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23년 이후 감소했으나 다른 지역 대비 중동과 지중해의 감소폭이 적었음.
- 이는 러시아 제재 동참으로 글로벌 선사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향 운항을 중단한 영향으로 중앙아, 터키 등 중동, 지중해항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
- '23년 하반기부터 조지아 포티항-카스피해,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등 대안 루트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운임 및 리드타임 다소 감소 중
  - CIS 지역의 물류 중심이 과거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등 러시아에서 우즈베크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로 변화하고 있음

〈러-우 전쟁 전후 유라시아 지역 이용 물류 루트 변화 상황〉

관문	전쟁 전	전쟁 후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항 (발트해)	글로벌 선사들 기항	글로벌 선사 운항 중단 러-중-이란계 일부 선사 기항
러시아 노보로스시스크 항 (흑해)	글로벌 선사들 기항	글로벌 선사 운항 중단 터키-러시아 일부 선사 기항
리가/탈린 항(발트해)	리가/탈린~러~중앙아 활발	50% 이상 물량 급감
파키스탄 카라치항 ~아프가니스탄	도난 위험으로 기피 루트	우즈베크스탄항 대안 루트

관문	전쟁 전	전쟁 후
중국 카쉬가르 역 ~키르기스스탄	험준한 산맥으로 기피 루트	우즈벡, 키르기스항 대안 루트
이란 반다르압바스 항	미국의 이란 제재로 기피 루트	러, 이란, 인도 교역에 적극 활용
조지아 포티항~카스피해	운송 시간이 길어 기피 루트	러시아, 이란 우회 가능 유일한 루트로 서방 화주들 이용 급증
블라디보스토크(TSR 관문)	글로벌 선사, 한국 선사의 비중 높았음	러시아, 중국 선사 점유 대폭 증가
청도, 연운(TXR 관문)	중양아항 운송에 큰 잇점	중국발 러시아항 화물 증가로 중양아항 화물 비중 감소

자료원 : KMI 북방물류리포트 제258호('23.4.17)

## ▣ (교역 변화) 우즈벡 기업들의 러시아산 대체 움직임과 외국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 우회 공간으로 우즈벡 활용 확대로 우즈벡 교역 증가

- 러시아에서 수입 시 대금결제, 납기 지연 등을 우려, 기계, 철강제품, 식품 등 대러  
주요 수입품의 대체 공급처 발굴 움직임 증가  
\* (식품 수입 C사)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것을 중국이나 인도 등 수입 대체처 발굴 중

### 〈우즈베키스탄의 '21년과 '22년 주요 교역 대상 변화 상품〉

(단위 : 천USD)

품목(HS코드)	우즈벡의 대러 수입			우즈벡의 대세계 수입		
	2021년	2022년	증감률	2021년	2022년	증감률
전체	5,331,691	6,053,274	13.5%	23,724,275	28,264,000	19.1%
철강관(7306)	64,728	62,157	-4.0%	93,409	97,052	3.9%
여과기(8421)	45,488	42,648	-6.2%	137,144	162,509	18.5%
황화합물(2930)	3,632	3,220	-11.3%	13,676	26,365	92.8%
세척기(8422)	3,508	3,123	-11.0%	75,441	82,378	9.2%
철강연결구(7307)	4,245	2,876	-32.2%	26,878	27,676	3.0%

자료원 : ITC Trade Map

- 대러제재의 영향으로 외국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을 대러교역 경유지로 활용하고, 러시아  
진출 우회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우즈벡과의 교역이 증가

## 라. 대체에너지 개발 및 자원 효율화에 역점

### ▣ (에너지)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효율화 등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 개선 노력

- (다변화) 중장기 전력산업 계획 마련, 2030년까지 수력, 풍력 태양광, 원자력 등 비화석 에너지원의 비중을 대폭 확대 계획

〈우즈베키스탄의 2020-2030 전력 에너지원 계획〉

(단위 : GW, %)

구분	2019		2025		2030	
	용량	비중	용량	비중	용량	비중
화력(가스)	8.5	66.4	13.3	59.7	13.4	45.7
화력(석탄)	2.5	19.5	1.7	7.6	1.7	5.8
수력	1.8	14.1	2.8	12.7	3.8	13.0
풍력	0	0	2	9.0	3	10.2
태양광	0	0	2.5	0	5	17.1
원자력	0	0	0	0	2.4	8.2
총계	12.8	100	22.3	100	29.3	100

자료원 :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

- '22년 기준, 화력발전 비중이 83% 차지, 가스 자급률도 떨어지고 있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발전량 확대를 위해서는 타 전력 에너지원의 개발이 시급
  - \* 가스 자급률 하락 예상으로 2023년 5월 1일부터 새로 건설되는 그린하우스 및 시멘트, 벽돌, 석회 생산공장에 천연가스 연결을 금지함
- (효율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수준의 요금 체계 마련 등 전력 관리 제도의 전반적 개선 계획 추진
  - 전력시장의 규제·허가관리 담당 기관을 설립하여 송배전 효율성을 관리하고 요금 징수 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 국내 전력산업 정상화에 집중
  - \* 우즈벡 에너지부, '23년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을 2배, 가스요금을 2.3배 인상(일반기업 기준)하였으며, '24년 5월부터는 가정용 전기요금도 사용량에 따라 차별화된 전기요금 체계 도입 예정

###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요금 체계 변화〉

(단위 : UZS)

구분		전	후	시기
산업용 (가스)	가스 소비 많은 기업	660	1,800	'23.10.1
	일반기업	660	1,500	
산업용 (전기)	전기 소비 많은 기업	450	1,000	'23.10.1
	일반기업	450	900	
가정용(전기)		(일반) 295 (아파트) 147.5	사용량에 따라 차등 부과	'24.5.1

자료원 :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고, 국영 전력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평가

#### ▣ (수자원) '우즈베키스탄 2030' 전략 속 철저한 수자원 관리 추진

- (효율화) 2030년까지 수자원 이용 효율을 현재보다 25% 높일 계획
  - 물 절약 기술 적용 농지 면적을 200만ha까지 확대하고 모든 식수 사용자에게 대해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물 절약 효과를 거둘 계획
- (품질관리) 공급되는 식수의 수준, 수도 공급 및 위생 시설의 효율성 등 품질 지표를 마련하고, 물 품질 관리에 노력
- (국제협력) 타지키스탄 등 인근 상류국과 수자원 관리 시설 협력 지속
  - 사막성 기후인 우즈베키스탄은 타지키스탄 등 인근 상류국과 수자원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왔고, 최근 아랄해 사막화 등 수자원 문제가 심화 중임

Chapter



비즈니스  
환경분석

---



### 1

###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우즈베키스탄 2030' 정책 추진으로 경제, 교육, 의료, 환경 등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지속되며, 러-우 사태로 경제에 긍·부정 영향이 공존하겠지만 5~6%대의 꾸준한 성장이 기대됨. 비즈니스 환경 개선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는 중 자동차, 농업 등 우즈벡 주요 산업 또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임

※ (경제) 러-우 사태 장기화에 따른 새로운 기회 발굴

※ (산업) 완성차 제조 및 농업분야에서의 경쟁력 제고, 외국인투자유치 강화

※ (정책) 대외개방 기조 유지, 수출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정책 강화

## 가. 정치 환경

###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23년 조기 대선에서 재집권, 개혁 정책 지속 추진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집권 3기에 접어들며 안정적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국가 발전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화·대외 개방 기조를 유지
- '23년 3기 정부 출범 직후, '우즈베키스탄 2030' 전략을 발표('23.8.1) 경제성장, 실용적 대외경제 협력, 수자원 효율화 등 핵심 전략 추진 중

#### 〈우즈베키스탄 2030 전략 요약표〉

주요 분야	주요 목표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0년까지 경제 규모 2배로 확대</li> <li>· 2030년까지 GDP를 1,600억 달러, 1인당 소득을 4,000 달러 달성</li> <li>· 2030년까지 연간 인플레이션율 5~6% 달성</li> <li>· 공공부채가 GDP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전략적 관리</li> <li>· 매년 고정자본에 투자되는 규모가 평균 7%씩 증가하도록 보장</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중등교육의 발달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 범위 확대</li> <li>· 사립 중등교육 기관의 수를 1,000개로 확대</li> <li>· 2024년부터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매년 100개 이상의 일반 중등교육 기관 신설</li> <li>· 향후 5년간 사립 중등교육기관 설립 위해 총 1조 슝 우대 대출 할당</li> </ul>

주요 분야	주요 목표
투자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의 투자 매력도 제고 및 증권시장 발전 가속화</li> <li>· 외국인 투자 1,100억 달러와 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투자 300억 달러를 포함하여 2,500억 달러의 투자액 유치</li> <li>· 외국 명목 예금자 및 수탁은행이 현지 자본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li> <li>· 'Halk IPO'에 40개 국영기업의 주식을 포함시키고 국민의 IPO 참여를 장려하는 방법 도입</li> </ul>
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경제의 수출 잠재력 높이고 고부가가치 상품의 비중 확대</li> <li>· 수출 규모 2배 늘리고, 수출기업 수를 15,000개로 증가</li> <li>· 수출 구성에서 완제품 및 반제품의 양을 3.3 배 확대</li> <li>· 국제표준을 이행하는 기업 수 총 10배 증가</li> <li>· 50개의 유명 글로벌브랜드와 협력하여 경제특구 설립</li> <li>·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 경쟁력 있는 제품의 나라'라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가 브랜드를 해외시장에 홍보하는 수출업체에 포괄적인 지원 제공</li> </ul>
물 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 사용 효율을 25% 높이고, 농업 관개 시 물 절약 기술이 적용되는 총 면적을 200만 헥타르까지 확대</li> <li>· 물 공급 시설을 민간 기업(농장 및 클러스터)에 이전</li> <li>· 모든 식수 사용자를 위해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고, 공급되는 식수 수준, 수도 공급 및 위생 시설 업체들의 효율성 등에 관한 품질 지표 구현</li> <li>· 인근 국가와 수자원 관리 시설에 대한 협력 지속</li> </ul>
환경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먼지 및 가스 정화 장비와 지역 폐수 처리시설을 설치 및 현대화, 14개 지역에서 환경 청정 지역 제도 시행</li> <li>· 도시 마스터플랜을 계획 시 면적의 최소 30%를 녹지로 배정하고, 주거용 건물 건립 시에는 사람 수에 비례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보장</li> <li>· 유기 동물 식별 및 예방접종 시스템 구축, 유기 동물 보호를 담당하는 14개 보호소의 활동 조직화</li> <li>· 산업폐수 상태에 관한 데이터를 공식 웹사이트 및 대중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정기적으로 공개</li> <li>·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오염 수준 예측</li> </ul>
의료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의 100% 디지털화 달성</li> <li>· 인구의 평균 수명을 78세로 연장</li> <li>· 의료분야에 할당된 자금 규모를 2배로 증가</li> <li>· 암, 심혈관 질환, 당뇨병,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2.5배 감소</li> <li>· 결핵 발병률 감소</li> </ul>

자료원 : 무역관 요약

## 나. 경제 환경

### ▣ 러-우 사태로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으나, 경제 성장세 지속

- 러시아 경제와 연관성이 큰 우즈베크는 대러제재 장기화로 다양한 긍·부정 영향을 받고 있으나, 국내의 주요 기관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
  - 대러제재 지속은 우즈베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으나,

- 한편으로 러시아 기업의 우즈벡 진출 확대, 글로벌기업들의 러시아 철수에 따른 시장 공백 활용 등으로 긍정적 영향도 다대함
- EBRD는 러시아 기업과 개인의 이주가 중앙아에서 소매, 부동산, 호텔 등의 수요를 촉진시켰다고 평가, 이에 '23년, '24년 우즈벡 경제 6.5% 성장 전망

#### 〈국내외 주요 기관별 우즈베키스탄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

기관명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World Bank	IMF	EBRD
성장률(%)	5-6	5.4	5.5	6.5

자료원 : 각 기관별 자료 무역관 취합

#### ▣ 물가상승률,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지표 안정세 유지 기대

- (물가상승률) 우즈벡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9%로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9~12%를 전망

#### 〈우즈베키스탄 물가상승률〉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물가상승률(%)	15.2	11.1	11.0	12.3	9-12

자료원 :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 (금리) 우즈벡중앙은행(CBU)은 최근 경제 활동 활성화, 소비자 수요 증가, 인플레이션 전망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행 14%로 유지하기로 결정
  - 우즈벡중앙은행은 '20.9월 이후 14%를 유지하다가 러-우 사태 이후 '22.3월 17%, '22.6월 16%, '22.7월 15%, '23.3월 14%로 조정하였음.
- (환율) '22년 초 러-우 사태 직후 급격한 절하를 보였으나, '22년 말까지 3.6% 절하 수준으로 마감했으며, '23년 다소 안정세 유지
  - 다만, 최근 러시아 루블화의 절하 지속으로 러시아와 무역 거래가 많은 우즈벡 숨화도 평가절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 대부분의 신용등급사, '안정적' 수준으로 전망 유지

〈우즈베키스탄 국가신용등급〉

구분	Moody's	S&P	Fitch
등급	Ba3	BB-(장기) / B(단기)	BB-
평가	안정적	안정적	안정적

자료원 : 각 사별 자료 무역관 취합

다. 산업 환경

▣ '23년 2분기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산업생산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

- 분야별로는 일반산업 5.6%, 서비스업 6.4%로 높은 성장세

〈2022년 우즈베키스탄의 부문별 국내총생산 성장률과 비중〉

(전년 동기 대비 %)

구분(비중)	2022년					2023년	
	1Q	2Q	3Q	4Q	연간	1Q	2Q
농림어업(25%)	2.7	2.6	4.4	3.6	3.6	3.2	3.8
일반산업(26.7%)	4.8	1.0	11.5	3.3	5.2	4.1	5.6
건설업(6.7%)	6.2	6.1	6.5	7.6	6.6	4.5	4.8
서비스업(41.5%)	8.5	8.0	8.9	8.5	8.5	7.0	6.4
전체	5.8	4.5	8.0	4.4	5.7	5.5	5.6

주 : 일반산업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원유, 천연가스, 광산업을 포함하며, 서비스업은 요식업, 숙박업, 교통·정보통신, 기타 서비스 등을 포함  
 자료원 :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 (광업)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주요 광물 생산 지속

- 천연가스의 경우, 매장량 부족 우려 등으로 생산량 조정 국면이며, 우즈베크 국내 소비 급증으로 '26년까지 수출을 전면 중단할 계획도 시사
  - '23년 10월부터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개시하여 국내 부족분 충당
    - \* '23.6월 우즈베크 에너지부-러시아 가스프롬 가스공급(연간 28억㎥, 총 2년) 계약 체결

### 〈우즈베키스탄 주요 천연자원 생산량 추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1-6월
원유(천 톤)	774.1	787.8	391.3
천연가스(백만 m³)	53,802.0	51,664.5	23,565.1
석탄(천 톤)	5,056.3	5,356.2	2,492.3

자료원 :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거시경제 보고서 (2023년 6월 기준)

#### ▣ (농업)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품종 전환, 스마트팜 등 적극 장려

- (온실 재배) 수출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겨울철 주요 신선 채소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 유지를 목적으로 온실재배를 장려하고 있음
  - 온실재배 주요 대상 작물은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등으로 해당 작물은 보관이 어려워 여름과 겨울의 가격차가 큼
- (품종 전환) 우즈베키스탄 주요 작물은 부가가치가 낮은 면화, 곡물 등이나 최근 수출 확대를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과일과 채소 재배로 전환이 가속화
  -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스마트팜 기술 도입에도 정책적 지원 중
  - 원면 수출을 금지('20.6월)하고, 목화 생산 및 판매 자유화 조치 등을 단행하는 등 면화 산업 개혁 지속 추진

#### ▣ (자동차산업) 해외 브랜드 투자유치, 현지생산 확대 등으로 활력 제고

- (UzAuto Motors) 전 세계적인 부품 조달 애로로 '23년 생산 목표를 다소 축소(55만 대 → 40만 대) 하기도 했으나, 모델 전환, 해외 생산 추진 등 새로운 시도
  - \* 우즈벡 최대 자동차 제조사 우즈오토, '23년 초 라세티 등 한국 모델을 오닉스 등 중국 모델로 교체
  - \* 우즈오토, 키르기스스탄과 '23년 1월 27일 키르기스스탄 약-수우 지역에 공장 설립 합의
- (현지생산 확대) ADM 등 새로운 조립생산 기업 등장
  - ADM사는 K5, 셀토스 등 기아차 모델을 SKD 생산 중이며, 조립공장 인근에 자동차 부품 생산단지도 조성 중('24. 상반기 완공 예정)
- (해외투자 유치) 중국의 전기차 생산기업인 BYD와 UzAuto Motors가 전기차 생산 합작법인 설립 계획 발표('22.12.30)

### 우즈베키스탄 전기차 시장

개별 수입상 중심으로 판매가 시작되면서 제한적으로 성장 중이며,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는 수도 타슈켄트 시에 한해 막 보급되는 단계

- 우즈벡 통계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1~10월간 22,492대(총 5억 8,230만 USD 규모)의 전기차가 수입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6배 증가한 수치임
- \* 주요 수입국 : 중국, 홍콩, UAE, 한국 등
- 태양광을 활용한 전기차 급속 충전소도 건설되기 시작하였으며, 주요 건물에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권장하고 있음.

## 라. 정책·규제 환경

### ▣ 보건·의료 분야 질적 개선 추진

- ‘국민건강-2030’ 전략 추진을 통한 의료 인프라, 서비스 개선
  - 보건전략연구원을 설립하여 건강한 생활 방식을 장려하고 적절한 영양 섭취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예정이며, 다음 사항이 전략에 포함됨
    - ①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 등 일차 의료서비스 전 국민 확대
    - ② 의료 시스템의 완전한 디지털화
    - ③ 현대적, 효과적 관리 방법 도입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 ④ 인적 자원 증대, 의학 교육 및 과학 발전
    - ⑤ 민간 부문 개발 및 투자유치, 대규모 PPP 사업 추진
- 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 및 '26년까지 전면 시행
  - '23.7.1 타슈켄트에서 건강보험제도 도입됐으며 '26년까지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전면 시행 예정

### ▣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도입 확대

- 우즈벡 내 외화 반입/반출 한도 상향 조정
  - '23년 9월 4일 승인된 우즈베키스탄 내각령에 따라 동년 12월 6일부터 외화 반입/반출 한도가 7,000만 숨에서 1억 숨으로 상향 조정됨
- 기업 간 거래 확대에 걸림돌이었던 Tax Gap 제도 폐지
  - 기업의 납세 실적 등급에 따라 부가세 환급 여부가 정해졌던 Tax Gap 제도를 '23년 9월 4일부로 폐지

- 납세 실적이 나쁜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과 거래한 우수납세기업에게도 부과세 환급을 제한하여 기업 간 거래 확대에 걸림돌이었음.

### Tax Gap 제도

세금 납부 여부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Tax Gap 등급이 적색일 경우, 회사 매출액 등을 해당 업체뿐 아니라 이 업체와 거래 중인 파트너사 역시 부가세 환급 불가

from 0.00 to 0.20 — "green" color — low level of tax gap  
 from 0.21 to 0.40 — "orange" — the average level of the tax gap  
 from 0.41 to 0.60 — "light red" — a high level of tax gap  
 from 0.61 to 1.00 — "dark red" — a very high level of tax gap

- 2025.1.1까지 일부 건설자재 대상 관세 면제 혜택 제공
  - ‘2023년 시장원리 기반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주택공급 프로그램 실시 방안에 관한 대통령령’(23.4.13)에 따라 시멘트, 합판 등 건축자재 수입 관세 면제

### 〈우즈베키스탄 수입관세 면제대상 건설자재 목록〉

품명	HS code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 · 알루미늄(aluminous) 시멘트 · 슬래그(slag) 시멘트 · 슈퍼설페이트(super sulphate) 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水硬性) 시멘트	2523
기타 제재목	440719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441011
섬유판	441113
합판 · 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441239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 거푸집널	441840
슬래그 울(slag wool) · 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680610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	700529

자료원 : 2023년 4월 13일 승인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 UP-51

### ▣ (ESG) 환경 보호, 아동 강제노동 금지 등 사회 전반에 ESG 움직임 시작

- 우즈베크 환경부, 기업들에게 폐수 정화 의무화(22.9.14 발표)
  - 폐수 배출 업체에게 하수처리장을 의무적으로 건설·재구축하도록 하는 규정 승인, 매일 7.3만㎥의 미처리 폐수 무단 배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아동 및 강제노동 근절 지속
  - ILO의 면화 재배 및 수확 과정 모니터링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아동 및 강제 노동이 근절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미국은 우즈베키스탄 면화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도 하였음(22.3)
- 고위공무원 대상 인권·성평등 교육 도입 등 사회 전반적으로 ESG 확대

#### 기타 2023년 우즈베키스탄 법률 개정 사항

- '23년 5월 1일부 월 최저 임금이 기존 92만 솀에서 98만 솀으로 인상 (6.5% 증가)
- 세금, 수수료, 벌금 등의 금액을 책정하는 데 사용되는 BCV(Basic Calculation Value)가 30만 솀에서 10% 증가한 33만 솀으로 인상됨
- 벌과금 즉시 납부 할인 제도 도입(15일 이내 납부 시 전체 벌과 금액의 50%, 30일 이내 납부 시 70% 부과)
- 2023년 5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25세 미만의 청년을 고용할 때 고용주에게 사회세를 반환하는 절차가 재도입됨
- 조세위원회에서 의약품 가격 규제
- 기업 대상 공공요금 온라인 계약 체결 시스템 도입

자료원 : 우즈베키스탄 언론보도 무역관 정리

※ 우즈베키스탄은 인구, 자원, 위치 등 국가 자체가 보유한 자산적 가치와 더불어 한국과의 관계,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비롯한 관계적 가치로 한국의 경제협력 파트너로 활용 가치가 매우 크다

##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 (시장 특성)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앙아시아 최대의 인구 보유국

국가 개황	
· 수도 : 타슈켄트	· 민족 : 우즈베크인(82.9%), 타지인(4.8%), 러시아인(2.7%), 고려인(0.7%) 등
· 면적 : 448,975 km <sup>2</sup> (한반도의 약 2배)	· 종교 : 이슬람교(88%), 러시아정교(9%) 등
· 인구 : 3,637만명 ('23년 7월 기준)	· 대통령 :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 평균 연령 : 29.1세	· 기후 : 고온 건조한 사막성 기후
· 언어 : 우즈베크어(국어), 러시아어(공용어)	
주요 경제지표	
· 명목 GDP : 791억 불 ('22년, IMF)	· 물가상승률 : 12.25% ('22년)
· 1인당 GDP : 2,255불 ('22년, IMF)	· 총교역액 : 500억 불 (수출193억불, 수입307억불)
· 경제성장률 : 5.7% ('22년, IMF)	· 실업률 : 8.9% ('22년)
시장 특성	
· 석유/가스 등 천연자원 보유	· 한국 및 한국 상품에 대한 높은 인지도
· 연평균 5%대의 고도성장 지속	· 세계무역기구(WTO) 미가입 국가
· 젊고 풍부한 노동력 보유	· 이종내륙국가로 인한 높은 물류비

- 도시인구 비율은 50.9%에 불과하나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인 타슈켄트가 확대되고 있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소비시장 형성 가능성이 큰 편

### ▣ (전략적 가치) 인구, 자원, 위치 등 국가 자체가 보유한 자산적 가치와 더불어 한국 및 주변국 관계에서 비롯한 관계적 가치로 풍부한 경험 가능성 보유

- (자산적 가치) 중앙아 최대 인구, 풍부한 자연 자원, 유라시아 대륙연결 중심 위치 등 경험 발전을 위한 우즈베크의 잠재적 가치 다대

구분	내용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673만 명('23년 7월 기준, 전년 대비 2.1% 증가)</li> <li>* 중앙아 5개국 76.5백만명(카자흐 19.1백만, 타지크 9.5백만, 키르기스 6.6백만, 투르크멘 6.1백만)</li> <li>· 인구의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전체 평균 연령 29.1세)</li> </ul>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장량(세계순위) : 몰리브덴 11위, 우라늄 12위, 금 16위 등</li> <li>· 생산량(세계순위) : 면화 6위, 금 7위, 천연가스 16위 등</li> <li>· 신재생 : 태양광(593GW)등 신재생에너지 잠재력 풍부</li> </ul>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라시아를 잇는 내륙통로 요충지(中 일대일로 중심지)</li> <li>· 중앙아 5개국과 국경을 맞댄 중앙아의 중심 국가</li> </ul>



- (이중내륙국의 한계와 역발상) 높은 물류비로 교역 경쟁력이 떨어지나, 중앙아 중심국, 최대 인구 보유 특성으로 현지생산/인근국 판매 거점으로 활용 가치 높음
- (관계적 가치) 한-우 전략적 동반자적 관계 및 우즈베크의 중앙아 역내 관계, CIS FTA 회원국 지위 등 주변국과 협력 관계로 높은 확장성 보유
  - (한-우 관계) 18만 고려인 네트워크, '90년대부터 이어진 한국기업의 대대적 투자 진출 등을 바탕으로 우즈베크는 한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국\* 중 하나
    - \* 총 4개국 : 인도, 인도네시아, UAE, 우즈베키스탄(201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격상)
  - (주변국 관계) 중앙아시아 중심에 위치하여 역내 국가 간 물류 거점이며, CIS FTA\* 활용 등 주변국으로 확장 잠재력이 다대
    - \* 총 9개국 : 러, 카자흐, 우즈베크, 키르기스, 타지크,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 나. 교역

▣ (개황) '23년 상반기 우즈베크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한 292억 달러

### 〈우즈베키스탄 연도별 교역액〉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6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수출	17,458.7	24.8	15,102.3	-13.4	16,662.8	10.3	19,309.1	15.9	12,140.0	23.0
수입	24,292.3	25.0	21,153.8	-12.9	25,507.7	20.8	30,699.3	20.4	17,030.5	17.0
교역	41,751.0	24.9	36,256.1	-13.1	42,170.5	16.3	50,008.4	18.6	29,170.5	19.4
무역수지	-5,448.5		-6,833.6		6051.5		-11,390.2		-4890.5	

자료원: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 (국가별) '23년 주요 교역국은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터키, 대한민국 등임.
  - 상위 교역국은 크게 변동이 없으며, 인접국인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과 프랑스와의 교역이 증가함.

### 〈우즈베키스탄 2023년 상반기 교역 상위 10개국〉

(단위: 백만 달러,%)

연번	국가명	교역액	수출액	수입액	교역 비중
1	중국	5,276.2	1,038.2	4,237.8	18.1
2	러시아	4,412.9	1,279.7	3,133.2	15.1
3	카자흐스탄	2,195.6	699.3	1,496.2	7.5
4	터키	1,492.3	616.9	875.4	5.1
5	대한민국	1,038.4	22.6	1,015.8	3.6
6	독일	928.8	36.5	892.3	3.2
7	키르기스스탄	484.0	349.7	134.3	1.7
8	투르크메니스탄	438.7	80.5	358.2	1.5
9	프랑스	388.0	195.3	192.7	1.3
10	아프가니스탄	370.7	367.4	3.3	1.3

자료원: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 ▣ (수출) '23년 상반기 우즈베크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3% 증가한 43억 달러

- 주요 수출 품목은 금, 철·비철금속, 음식, 육류, 완제품 등

〈우즈베키스탄 2023년 상반기 품목별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수출액	비중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전체수출	12,140.0	100	23.0
금	4,375.50	36.0	47.3
용역	2,285.10	18.8	41.4
산업재	2,130.20	17.5	-8.9
음식, 육류	871.6	7.2	33.4
완제품	624.9	5.1	24.7
기계운송장비	599.7	4.9	58.8
화학제품	574.4	4.7	-1.2
연료, 석유제품	440.3	3.6	-20.6
천연자원(연료제외)	148.2	1.2	-26.6
음료, 담배	65.3	0.5	3.6
기타	19.5	0.2	0.4
오일, 지방류	5.4	0.04	-70.7

자료원: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 (수입) '23년 상반기 우즈베크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한 170억 달러

- 주요 수입품목은 기계운송장비, 석유화학 등

〈우즈베키스탄 2023년 상반기 품목별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수입액	비중	전년 대비 증가율
전체수입	17,030.5	100.0	17.0
기계운송장비	6,432.3	37.8	29.8
산업재	2,781.5	16.3	1.7
화학제품	2,271.9	13.3	10.2
음식, 육류	1,705.9	10.0	8.9
연료, 석유제품	1,279.5	7.5	72.9
용역	1,015.6	6.0	-7.4
완제품	631.9	3.7	6.5
천연자원(연료 제외)	577.9	3.4	-1.1
오일, 지방류	213.4	1.3	43.9
음료, 담배	81.9	0.5	41.4
기타	38.9	0.2	150.0

자료원: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 ▣ (경쟁 동향)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터키, 독일 등이 주요 경쟁국

- (중국) 2015년 이래 우즈베키스탄 수입시장 1위를 유지
  - 낮은 원가, 지속적인 현지 투자 확대, 물류 이점 등을 통해 소비재부터 기계설비까지 전방위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품질 역시 많이 개선되어 중국산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는 추세
- (러, 카자흐) 지리와 구소련권 등의 이점을 보유
  - 러시아 TV를 통해 방영되는 광고가 우즈벡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
- (한국) 고려인 네트워크, 1990년대 대대적 투자 진출로 한국산에 우호적
  - 우즈베키스탄에는 여전히 고려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고, 유학생과 다수의 노동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어 양국 간 심리적 거리가 가까움
  - 한국산 제품 사용 경험이 많아 한국산 제품의 우수한 품질, 디자인 등이 우즈벡 시장에 잘 알려져 있음

## ▣ (수입규제 및 장벽) WTO 미가입국으로 수입 장벽이 높은 편

- WTO 미가입국으로 자국의 수요공급 여건이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무역장벽을 설정하고, 통보 의무가 없어 해당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세관에 적합한 제품 HS Code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관세 부과 시 세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관세율을 책정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 필요
- 자국의 제조업 육성을 위해 신규 설비 등에는 세금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반대로 외국산 완성품(자동차, 화장품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 부과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자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인터넷 기업은 서버를 반드시 우즈베키스탄 영토 내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법제화 ('21.5)

## 다. 투자

### ▣ (투자유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감소세였으나, 2022년부터 회복세를 보임

###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투자 유치 현황〉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6월
총 외국인 투자액	4.2	2.9	2.8	3.0	2.0

자료원: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 국가별 투자 기업 수는, 2023년 9월 기준으로 총 15,801개 사이며, 러시아, 터키, 중국 순임. 한국은 총 930개 사로 전체 투자 기업 수의 5.9%를 차지

### 〈국가별 외국 자본 운영 기업 수〉

(단위: 개사, %)

국가명	기업수	비중
러시아	3,156	19.9
터키	2,204	13.9
중국	2,141	13.5
카자흐스탄	1,258	7.9
대한민국	930	5.9
기타	6,112	38.7
총계	15,801	100.0

자료원: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2023년 9월 기준)

## 라. 프로젝트

### ▣ 신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증가

- 2022-2026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에 따르면 향후 PPP로 140억 달러에 달하는 약 154개의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
- 특히 우즈벡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하며 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을 늘리고 녹색 경제로의 전환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 중
  -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용량을 10GW로 늘리고 발전량에서 재생 에너지 비중을 최대 25%까지 늘릴 계획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확대와 관련하여, 중국, 중동, 유럽 등의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적이며, 완공하여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가 다수 있음
  - \* UNDP에서 투자하여 나만간 지역의 건물 옥상에 58kW 규모의 태양광 패널 설치 운영
  - \* 보스탄릭 지역 유빌리니 마을에 750kW 용량으로 중앙아에서 두 번째로 큰 중국산 풍력 터빈 가동
    - 2026년 말까지 총용량 11,954MW의 발전소 25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가동될 예정이며 이는 현재 우즈베키스탄 발전량의 60%에 해당함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분야 주요 프로젝트〉**

유형	용량	지역	가동 시기
풍력	500MW	Tomdinsky	2023년 말
태양광	1,320MW	Samarkand	2024년
태양광	220MW	Kattakorgan	2023년 말
태양광	1,000MW	Nurabad	2024년
화력	3,293MW	Syrdarya	2026년
화력	1,500MW	Shirin, Bayaut	2023년 말
화력	1,573MW	Bayaut	2026년
태양광	220MW	Jizzakh	2023년 말
태양광	400MW	Yukori-Chirchik	2024년
화력, 풍력, 태양광	1,520MW	Buhara	2024년

자료원 : 무역관 조사 자료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 ※ EU,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선진 시장
- ※ 가치 지향의 소비자가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시장
- ※ 에너지 가격 안정세로 '23년 EU 대외 무역 적자폭 완화세이나 EU FDI 투자액은 '19년 이후 저조한 흐름 지속 중
- ※ '23.8월 누계 기준 對EU 수출액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47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경기 둔화에도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선전

가. 교역

▣ (개황) '23년 9월 누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의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18.7억 달러를 기록

〈한-우즈베키스탄 연도별 교역액〉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9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 교역	1,722	-27.0	1,901	10.4	2,212	16.4	1,871	7.3
수출	1,704	-27.1	1,879	10.3	2,184	16.2	1,784	8.8
수입	18	-7.9	22	21.4	28	26.7	87	297.3
무역수지	1,686	-27.3	1,857	10.1	2,156	16.1	1,697	4.8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2023년은 전년 동기 대비

▣ (수출) '23년 9월 기준,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17.8억 달러를 기록

- (자동차) 자동차 및 부품은 한국의 대우즈베크 최대 수출품으로 전체 수출액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꾸준히 상승세
  - \* 자동차 및 부품 대우즈베크 수출 : ('21) 1,116백만USD, 56.4% → ('22) 1,465백만USD, 67.1%
  - UzAuto Motors의 한국 1차 벤더를 통한 수출이 꾸준한 반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ADM과 같은 조립생산 기업이 SKD 형태로 기아의 K5 등을 조립 생산하면서 수출 증가

- (건자재) 최근 타슈켄트를 중심으로 한 건설업 활성화로 건설 중장비, 플라스틱 등 건설자재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 (기계류) 우즈벡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우즈벡 기업들의 러시아산 대체 움직임으로 한국산 수출 증가

〈품목별 대우즈베키스탄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번	코드	품목명	2022년		2023년 1-9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		총계	2,183,539	16.2	1,784,313	8.8
1	7420	자동차부품	1,006,732	14.2	676,238	-9.4
2	7411	승용차	458,386	95.5	410,979	16.1
3	7111	원동기	86,312	16.6	76,238	29.4
4	2140	합성수지	101,803	16.7	75,855	2.7
5	9110	서적	45	-57.9	31,237	70,241.4
6	7290	기타 산업기계	7,089	34.8	26,700	332.1
7	7251	건설중장비	22,390	-30.1	25,612	39.1
8	5121	의자	36,931	1.3	24,758	-15.7
9	7121	운반하역기계	3,836	-81.1	23,304	798.7
10	7131	공기조절기	18,507	20.2	18,950	31.2
11	1336	윤활유	21,306	28.1	17,774	16.7
12	7511	볼트 및 너트	14,697	91.5	16,826	90.4
13	2273	화장품	8,271	66.1	14,613	149.3
14	2290	기타 정밀 화학제품	12,059	-20.5	13,715	37.7
15	7112	펌프	32,472	2.3	13,165	-50.1
16	7262	용접기	4,416	-2.4	11,426	197.9
17	5151	문구	9,775	28.3	10,099	32.2
18	8352	축전지	9,814	-21.9	9,025	17.4
19	7412	화물자동차	6,186	823.8	8,772	266.5
20	8151	계측기	13,017	27.0	8,736	-7.6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수출 성공 사례(의약품 제조업체 P사)

수출금액	약 260만USD	수출품목	의약품
성공요인	꾸준한 현지 바이어 관리 및 한국 전시회 적극 활용 - '19년 KOTRA 타슈켄트무역관 유치한 방한 바이어 R사와 최초 상담 - 코로나19로 거래 타진 등 커뮤니케이션 유지에 애로를 겪었으나, 타슈켄트 무역관의 지원을 활용, 지속적인 연락 유지 - 2021~2023년 기간 5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 수출 최초 성공 - '23년 해당 바이어 R사가 KOTRA 개최 GBPP 2023 전시회에 참가하면서, 동 전시회를 활용 약 210만 달러 규모의 재계약 체결		

▣ (수입) '23년 9월 누계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97.31% 증가한 8,687만 달러를 기록

-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 품목은 우라늄, 면사, 펄프, 순면직물, 한약재 등 1차 생산품 및 기초 가공품으로 한정
  - 우즈베키스탄의 수출 장려 정책에 따라 현지 투자 진출 한국기업 생산 자동차부품 등이 일부 수입되고 있으나, 빈도가 일정치 않고 금액도 작음

〈품목별 대우즈베키스탄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번	코드	품목명	2022년		2023년 1-9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		총계	27,932	26.7	86,872	297.3
1	1360	우라늄	0	0.0	71,490	0.0
2	2511	펄프	6,209	-8.2	4,944	8.6
3	2900	기타 화학공업제품	0	229.4	2,662	0.0
4	0156	식물성 한약재	2,560	28.7	2,002	9.0
5	2262	의약품	2,708	22,562.608	1,232	-30.4
6	0191	천연섬유 원료	1,066	28.5	595	-2.0
7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297	858.4	496	130.7
8	4331	순면직물	2,892	-23.3	429	-85.2
9	4490	기타섬유제품	28	-64.5	397	1,767.3
10	0159	음료	363	38.5	274	38.2
11	0113	두류	695	170.0	256	-22.1
12	0121	채소류	315	34.5	193	32.6

순번	코드	품목명	2022년		2023년 1~9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3	4411	편직제의류	12	932.8	175	1,416.4
14	0152	초코렛 및 코코아조제품	196	1,014.8	166	10.7
15	7519	기타 기계요소	22	2,930.5	134	518.8
16	0131	식물성유지	0	-100.0	124	0.0
17	7420	자동차부품	32	-57.9	120	527.8
18	4211	건설	70	1,109.4	94	34.9
19	8146	X선 및 방사선기기	22	0.0	94	0.0
20	0157	주류	106	66.9	77	-9.2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나. 투자

### ▣ (진출개항) 대우즈벡 투자는 '23년 9월 누계 총 465건, 8.7억 달러 기록

#### 〈최근 5개년 대우즈베키스탄 투자 현황〉

(단위: 건, 천 달러)

연도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순투자금액
2019	75	35,014	183	74,886	32,563
2020	24	19,483	93	25,842	18,132
2021	22	56,758	105	78,495	51,704
2022	16	23,289	83	33,202	15,260
2023(1~9)	11	13,754	43	16,466	9,683
합계(누계)	465	869,566	1,296	1,700,117	551,270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023년은 9월까지 통계 반영

〈업종별 對 우즈베키스탄 투자현황(2022~2023년)〉

(단위: 건, 천 달러)

업종 대분류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합 계	16	4	23,289	4,534	83	15	33,202	16,466
농림어업	1	0	1,150	1,307	2	0	2,940	0
제조업	6	2	12,144	829	15	3	17,781	5,664
전기,가스,공조공급업	1	1	1	1	1	1	1	1
건설업	0	0	883	200	5	1	886	2,200
도소매업	0	0	1,466	69	25	3	1,882	116
운수창고업	0	1	229	9	4	1	249	295
정보통신업	3	0	296	0	3	1	296	7
부동산업	0	0	4,898	1,280	11	3	6,148	2,72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	0	550	410	3	1	650	647
사업시설 관리, 임대	0	0	400	75	1	0	1,000	0
교육 서비스업	4	0	1,273	353	13	1	1,370	4,810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023년은 10월까지 통계 반영

□ (진출 분야) 자동차부품, 섬유 등 제조업 분야에 약 160여 개사 활동 중

- 진출 기업으로는 자동차 부품과 섬유 분야의 제조업 분야가 많으며, 한국가스공사, 롯데케미컬 등 자원·에너지, 석유화학 분야도 대표적임
- 물류(에코비스, 우진글로벌 등)와 IT(KT), 금융(KDB)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투자 진출 성공 사례 존재

〈업종별 주요 우즈베키스탄 진출 기업〉

업종	투자 진출 기업명	
제조업	자동차 부품	우즈동흥, 우즈세명, 우즈동주, 우즈동양, 우즈거제, 우즈동원, 우즈이래CS, 우즈이래케이블, 우즈이래알터네이터, 우즈한우, 우즈성우, 광진오토, 우즈인지, 우즈오토오시스템 등
	방직/봉제	포스코텍스타일, 신동, 영원무역
	전기전자	삼성전자
	기타	GKD(한국조폐공사-포스코인터네셔널 합작) 등
자원/에너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롯데케미칼, 수자원공사, 신동에너지콤 등	
물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LX판토스, 롯데로지스틱스, 에코비스, UNICO, 우진글로벌, 태웅 등	
통신/IT	이스트텔레콤(KT), LG CNS	
금융	KDB Uzbekistan, 수출입은행(EDCF)	

자료원 : 타슈켄트무역관 조사 자료

##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성공 사례

### • 포스코 텍스타일

<b>주요연혁</b>	'96년 대우면방법인(DTC)이 최초 설립된 후 '08년 부하라 면방법인, '09년 통합 페르가나 면방법인 설립, 이후 포스코텍스타일로 법인 통합
<b>주요사업</b>	세계적 면화 생산국인 우즈베크 원면을 현지 조달하고 이를 가공하여 현지에서 생산한 단사, 합사 등을 유럽, 중국, CIS 등지로 수출 공장입주 지역인 페르가나 지역의 경제에도 고용, CSR 활동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 현지 신뢰도가 높음
<b>최근현황</b>	2022년 3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우즈베크 정부는 원면 클러스터 업무 협약 체결하여 페르가나 지역 내 5천ha 재배면적을 확보했으며, 현재 타슈켄트 지역에도 2천 ha 확보 추진 중

### • East Telecom (KT)

<b>주요연혁</b>	'07년 KT가 우즈베크 통신사 ET의 지분 인수해 사업 개시
<b>주요사업</b>	'15년 4G LTE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출시하여 탁월한 속도와 네트워크 안정성을 제공하였으며, '21년 온라인 쇼핑몰 Neva를 구축
<b>최근현황</b>	최근 타슈켄트시에 데이터센터를 구축 중이며, IT 종합 솔루션 제공하면서, 중앙아시아 DX 리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다. 협력 유망 분야

### ▣ (국가 간) 의료, 교통 인프라 확충 및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강화

- (인프라) '23년 9월 한국 경제부총리 우즈베크 방문 계기, 양국 간 협력 방향 협의
  - (교통) 우즈베크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고속도로, 고속철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로 함
  - (의료) 양국은 의료, 친환경·디지털 분야 등 다양한 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로 함
- (공급망) 한-우즈베크 희소금속센터를 통해 우즈베크는 광물자원을 상품화하고, 한국은 이를 통해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상호협력 체계 구축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한국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가 우즈베크와 물리브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치르치크 지역에 한-우즈베크 희소금속센터를 설립('19년 6월)

- '23년 9월 우즈벡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여 희소금속으로 지정된 몰리브덴과 텅스텐의 원활한 공급을 기대하고 있음

## ▣ (기업간) 우즈베키스탄 자동차산업 활성화 및 태양광 구축 확대 움직임 활용

- (자동차) 현지 부품 조달 비율을 높이기 위해 우즈벡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UzAuto Motors와 조립공장 가동을 시작한 ADM 모두 한국기업 유치에 노력
  - UzAuto Motors는 추가 현지조달이 필요한 부품 위주로 한국기업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우즈베키스탄 내 공장 설립을 협의하고 있음
  - ADM은 지작주에 위치한 조립공장 인근에 '24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자동차 부품생산 단지를 조성 중이며, 단지 내 한국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태양광) 우즈벡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움직임을 활용, 현지 유력 건설사 등이 한국의 태양광 패널, 인버터 생산기업과 협력 추진
  - 우즈벡 에너지부는 2026년까지 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을 25%로 늘릴 계획이며, 특히 태양광 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 다층건물 옥상 면적의 50% 이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가정에 소용량(총용량 최대 50kW) 태양광 패널 설치 장려하는 "Solar Home" 프로젝트 등
  - 이와 관련하여, 현지 대형 건설사 중 하나인 오리엔트 그룹이 태양광 패널과 인버터 생산을 위해 한국기업과 협의를 지속 추진하는 등 협력 확대

Chapter



# 진출전략

---



※ 제조업 육성 등 우즈벡 산업정책 활용 자동차, 태양광 등 유망품목에 마케팅을 집중하고, 의료, 교통인프라 등 한-우즈벡 정부 간 협력 확대 분야의 기회요인을 활용하며, 장기적으로 물류, 제조업 분야 투자 진출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CIS 지역 진출 거점으로 활용

## 1 PEST 분석

<p><b>P</b> 정치정책 (Politic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년 7월 시행된 조기 대선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재당선되며 집권 3기 시작, '우즈베키스탄 2030' 장기 발전 전략 추진</li> <li>• WTO 가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3년 8월 대통령령으로 WTO 규범과 조화를 위한 우즈벡 일부 법령 개정을 승인함</li> <li>•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효율화 등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 개선 노력</li> <li>• 각종 절차 간소화 등 외국 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 Tax Gap 폐지 등 친기업 정책 확대</li> </ul>
<p><b>E</b> 경제 (Economi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우 사태 장기화 속 금·부정 영향이 교차하는 가운데, 5~6%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전망</li> <li>• 물가상승률,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지표의 안정세 유지 기대</li> <li>• 제조업, 서비스업 등 우즈벡 산업생산 전년 대비 높은 성장세 유지</li> <li>• 품종 전환, 스마트팜 장려 등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 중</li> <li>• 부품 현지 조달을 제고 위해 부품생산단지 조성, 해외투자 유치 확대</li> </ul>
<p><b>S</b> 사회문화 (Soci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년 7월 기준 약 3,637만 명의 인구로 중앙아 최대 인구 보유</li> <li>• 평균 나이 29.1세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li> <li>• 18만 명의 고려인 거주, 한국 유학생 증가, 한국 이주 노동자 등으로 한국과의 교류가 많으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음</li> <li>• 기업들에게 폐수 정화가 의무화되는 등 유기농 식품,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li> </ul>
<p><b>T</b> 기술 (Technologic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달앱, 이커머스, 모바일 뱅킹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관련 업체들도 증가하는 추세</li> <li>•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과 산업, 교육 및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추진 중</li> <li>• 우즈베키스탄의 인구 중 인터넷 사용 인구는 3,110만 명</li> <li>• 2028년까지 ICT 서비스 수출을 10억 달러로 늘리겠다는 목표 발표</li> </ul>

## 〈우즈베키스탄 시장 SWOT 분석〉

강 점(Strength)	약 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5%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li> <li>• 3,600만 명 이상의 중앙아 최대 인구 보유</li> <li>• 아시아-유럽의 도로, 철도, 가스/전력 등 교류의 가교역할 수행</li> <li>• 가스, 우라늄, 면화 등 자원 및 원자재 풍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내륙국가로 불리한 물류 여건</li> <li>• 전반적 금융시스템 낙후, 투명성 저조</li> <li>• WTO 비회원국으로 변동성 높음</li> <li>• 잦은 제도·정책 변경으로 인한 진출 위험성</li> <li>•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높은 관세·비관세 장벽</li> </ul>
기 회(Opportunity)	위 험(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르지야예프 3기 정부의 높은 개혁 의지 지속</li> <li>• 고려인 18만 명, 한국제품과 문화에 우호적</li> <li>• 한국의 유무상원조사업 활발(ODA, EDCF, KSP)</li> <li>• ADB, WB 등의 자금을 활용한 프로젝트 다수</li> <li>• 한국과의 FTA 협상 추진 중</li> <li>• WTO 가입 추진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국 산업 육성을 통한 국산화율 제고 노력</li> <li>• 높은 물가상승률과 환율 평가절하 지속</li> <li>• 본격적인 개방에 따른 시장경쟁 심화</li> <li>• 더딘 소비자들의 구매력 상승폭</li> <li>• 중국, 러시아, 중동 국가의 진출 확대 추세</li> </ul>

전략 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신규 주력 품목 마케팅</li> <li>• 민관협력사업(PPP) 형태의 프로젝트 참여 확대</li> </ul>	수출유망분야 수출직결 마케팅
ST 전략 (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브랜드와 문화에 대한 선호 현상 적극 활용</li> <li>• 현지 수출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브랜드 마케팅 확대</li> </ul>	브랜드 중심 네트워크 마케팅 전개
WO 전략 (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여사업과 마케팅 연계 활용(보건, 의료, 기술협력 등)</li> <li>• 유무상원조사업(ODA, EDCF, KSP) 적극 활용</li> </ul>	기술·지식교류 진출 강화
WT 전략 (위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투자 진출 및 우즈벡 수출지원 정책 활용</li> <li>• 내수시장 외 주변 중앙아·CIS 시장 동시 타겟팅</li> </ul>	물류·제조업 투자 진출

###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산업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유력파트너 발굴 및 핀포인트 마케팅 전개</li> <li>- (제조사) UzAuto, ADM 등 현지 유력 제조사에 부품 소싱 맞춤 마케팅</li> <li>- (A/S) AVTOritet 과 같은 현지 유력 자동차 A/S 부품 유통사 마케팅</li> </ul>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우즈벡 개최 의료 전시회 등을 유력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li> <li>○ (중장기) 현지 병원설립 프로젝트 연계 및 생산 거점 확보</li> </ul>
신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개최되는 에너지 전시회 등을 유력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li> <li>○ 에너지 부문 투자프로젝트에 민간합작투자사업(PPP)을 통한 진출 모색</li> <li>○ 한-우즈벡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사업 활용</li> </ul>
화장품 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성장 중인 우즈벡 온라인 쇼핑물 입점 마케팅</li> <li>- (UZUM) 우즈벡 현지 유력 온라인몰 활용, 한국 화장품 진출 확대</li> <li>- (NEVA) 우즈벡 진출 유력 플랫폼 활용, 한국 소비자 공동 진출</li> </ul>
건설장비 건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진출 건설장비·건자재 무역상사 활용 마케팅</li> <li>○ 우즈벡 현지 생산으로 물류 애로 극복 및 주변국 시장 확대</li> </ul>
기계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즈벡 주요 기계장비 수요기업과 파트너링</li> <li>○ 자동차, 가전, 화학 등 우즈벡 주요 제조기업 산업재 수요 모니터링</li> </ul>
철강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 수요) 러시아산 점유 가전제품 및 자동차 제조용 철강 수요의 한국산 대체를 위한 핀포인트 마케팅 전개</li> <li>○ (신규 개척) 우즈벡 건설 붐 활용 건설 철강자재 시장 진출 강화</li> </ul>

단기성과창출 장기시장선점

**러-우 사태, 시장환경 재편 움직임 속에 변화하는 우즈벡 시장 기회 활용 수출 더하기**

### 3-1. 수출 유망 분야 수출직결 마케팅 확대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자동차부품) 자동차산업, 우즈벡 최대 역점 산업이자 한국의 우즈벡 최대 수출품
  - \* 우즈벡 자동차부품(HS8708) 수입('22년) : 韓 8.8억\$(72.2%) > 中 0.9억\$(7.3%) > 日 0.6억\$(5.2%)
- (철강·기계장비) 대러제재 강화로 대금결제, 납기지연 등을 우려, 대러 수입 대표품목인 철강, 기계장비 등의 대체 공급처 발굴 움직임 확산
- (의료바이오) 인구 증가로 보건의료 수요 지속 확대, 한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높은 신뢰
  - \* 대통령령('21.5)에 따라 외국 공인기관(한국식약청 포함)의 인증 의료기기 별도 테스트 면제
- (전력·신재생) 전력의 생산/분배/관리체계 개선 및 화력발전 중심에서 신재생 발전 확대
  - \* '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최소 25%로 확대 예정(수력 11%, 태양광 8%, 풍력 7% 등)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자동차부품) UzAuto의 생산 축소와 모델 전환 등의 움직임과 함께 ADM사 등 새로운 조립생산 기업의 등장, 전기차 보급 등으로 부품시장 역동성 증가
  - (UzAuto) 세계적인 부품 조달 애로로 '23년 최초 목표치였던 55만 대 달성에 어려움, '23년 라세티(한국 모델)에서 오닉스(중국 모델)로 전환
  - (조립생산) ADM사는 K5, 셀토스 등 기아차 모델을 SKD 생산 중이며, 조립공장 인근에 자동차 부품 생산단지 조성 중('24년 상반기 완공 예정)
    - \* Drivers village사 : '23년 쌍용자동차 수입 개시, 현대차 SKD 생산 희망
  - (전기차) '23년 중국의 BYD 전기차 수입이 증가 중이며, BYD와 UzAuto Motors가 전기차 생산 합작법인을 설립, 중국산 부품 수입 증가 중
- (철강·기계장비)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산업재의 수입 수요가 높으며, 최근 대러제재 장기화로 러시아와 거래가 많았던 철강, 기계 등의 대체 수입처 물색 중
  - 우즈벡은 핵심 산업으로 에너지(석유·가스, 화학), 농업(농식품, 섬유), 제조업 기반(건축자재, 기계)을 꼽고 이를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섬유산업에서는 단순 원면 생산에서 탈피하여 추가 공정(염색, 디자인, 봉제) 관련 설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부품, 장비 수요가 높음
  - 한편, 러-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과거 러시아에서 주로 수입하였던 철강 등의 산업재를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
    - \* 우즈벡 테크노파크(전자제품조립생산), 러시아산 철강을 한국산으로 대체 검토
- (의료바이오) 중앙아 최대 인구로 탄탄한 시장 보유, 의료 환경 개선에 대한 우즈벡 정부의 높은 정책 의지 등으로 의료시장 규모 지속 확대

구분	내용
인구 증가	· 3,637만 명('23년 7월 기준), '35년 5천만까지 증가 예상 · '00년~'18년 1인당 경상 의료비 증가율 7% (세계 평균 4%)
정부 의지	· 전국민 의료보험제 도입 및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 노력 · 현대적, 효과적 관리 방법 도입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 의료기기는 저가의 중국산과 고품질 독일산이 수입시장 절반가량 점유 중, 의약품은 인도산 복제약이 많으나, '23년 1월 인도 감기약 복용 아동 65명 사망 사건으로 인도산에 대한 경계 확산
- (전력·신재생) 전력원 다변화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전력의 생산·분배·관리 체계 개선
  - 수력발전 용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풍력, 태양광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
  - '26년까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을 4GW씩 총 8GW 규모로 건설하여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5%로 확대 계획
  - 기존 발전소의 현대화 및 재건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발전 기술을 사용한 새로운 발전소 건설, 전기 계량 시스템의 개선, 요금 제도 개선 등

### ▣ 진출전략 및 유망 분야

- (자동차·철강기계) 현지 유력파트너 마케팅 확대 및 기술협력·장비이전
  - ① 현지 유력파트너 발굴 및 핀포인트 마케팅 전개
    - UzAuto, ADM 등 현지 유력 자동차 제조사에 부품 소싱 수요 발굴 및 마케팅
    - AVTOritet 과 같은 우즈베크 현지 유력 자동차 A/S 부품 유통사 마케팅
    - \* AVTOritet : 우즈베크 최대 자동차 A/S서비스 체인으로 부품판매, 수리정비서비스 제공
  - ② 첨단기술 수출 또는 운영 지원에 따른 기술료 계약
    - 직접 투자의 경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기계·설비 판매 및 운영·교육·유지 보수, 라이선스 이용 등에 따른 기술료 계약을 체결
  - ③ 유희기술 및 장비 이전
    - 한국에서는 이미 사양화되었으나 현지에서는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여 아직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의 제조 설비 이전 (생산 3년 이내로 제한)
    - \* 유망 분야 : 농기계, 건축자재, 섬유기계, 의료기기, 정보통신기기, 기타 제조용 설비 등
- (의료·전력신재생) 현지 유망플랫폼 활용 수출직결 마케팅 확대

- ① 우즈벡 내 개최되는 의료, 에너지 전시회 등을 유력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

〈2024년 우즈베키스탄 주요 의료, 에너지 전시회〉

전시회명	전시회 정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의료 전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최 기간 : 2024.4.16.~2024.4.18.</li> <li>○ 개최 장소 : UzExpoCenter</li> <li>○ 개최 규모 : 15,000sqm</li> <li>○ 전시 품목 : 의약품, 의료제품, 미용의학용 장비, 의료기기, 진단장비</li> </ul>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에너지 전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최 기간 : 2024.5.14.~2024.5.16.</li> <li>○ 개최 장소 : UzExpoCenter</li> <li>○ 개최 규모 : 7,600sqm</li> <li>○ 전시 품목 : 전력기자재, 디젤발전소, 열교환기, 원자력, 신재생에너지</li> </ul>

자료원 : 타슈켄트무역관 조사 자료

- ② 병원설립, 신재생발전소 등 현지 유망 프로젝트를 진출 플랫폼으로 활용
  - 한국수출입은행 EDCF 활용 현지 병원설립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한국 의료 기자재 진출 파이프라인 확보

〈수출입은행 EDCF 활용 우즈벡 병원설립 프로젝트〉

연번	프로젝트명	진행 현황
1	우즈벡 성인병원 건립 프로젝트	설계 감리 업체 선정 중
2	우즈벡 암센터 설립 프로젝트	설계 감리 업체 입찰 준비 중
3	우즈벡 외과대 설립 프로젝트	공여 계약 체결 준비 중

자료원 : 타슈켄트무역관 조사 자료

- 에너지 부문 투자프로젝트에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을 통한 진출 모색, 발전소 현대화, 태양광 발전소, 열병합 발전소, 스마트 전력 시스템 등이 유망
-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사업 활용, 우즈벡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모색

우즈벡과의 온실가스 국제 감축 협력 사업

-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분을 우리나라의 실적으로 인정
- 이에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시행하는 온실가스에 투자하는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에 투자(총사업비 중 감축설비 투자비의 최대 50% 지원)
- 우리 정부는 우즈벡을 우선협력국으로 선정하여 베트남, 몽골, 가봉 다음으로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 추진을 위한 양자협력을 체결하였음('23.6.1)
- '23년 우즈벡 내 농산물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펄릿 연료 전환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4년에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사업 수요를 발굴할 예정임

### 3-2. 브랜드 중심 네트워크 마케팅 전개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시장 규모 급성장 중('19년 7,778 → '22년 1조 4,244억숨, Euromonitor)
  - \* '전자상거래 발전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해 온라인상 결제 승인 환경 구축
  - \* Payme, Click 등 모바일 결제 애플리케이션 사용 활성화, 우즈벡 전역 물류 서비스 개선 등
- (한국 프리미엄) '90년대 한국의 대대적인 투자, 유학, 이주노동 등으로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며, 한국제품에 대한 프리미엄 인식이 정착
- (네트워크) 18만 고려인 네트워크, 우즈벡 진출 무역상사 네트워크, 인터넷쇼핑몰 등 한국 제품 진출에 활용 가능한 탄탄한 네트워크가 마련되어 있음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2년 오픈 우즈벡 토종 온라인 쇼핑몰 UZUM, 유통망 판도 바꾸는 중

#### UZUM



UZUM 온라인 광고



UZUM 픽업포인트



UZUM 물류창고

- 우즈벡 내 픽업센터 212개 운영(7월 기준), 연내 500개 오픈 목표
- 유통망 내 제품 약 50만개 및 기업 5,000개 등록(연내 1만개 등록 예정)
- 월 이용자 수 500만 명, 1일 배송량 40만 개(주문 후 다음날 수령)
- App Store 및 Google Play 다운로드 앱 순위 1위 유지 중
  - \* 현지 인기 앱인 텔레그램, 왓츠앱, 인스타그램보다 다운로드 수 상회
- '23.6월 UZUM 우즈벡 내 최대 온라인 결제 플랫폼 Click 인수합병 발표
  - \* Click : 이용자수 1,100만 명 / 월 결제 3,700만 건
- 우즈벡 최초 할부 결제 서비스 도입
- 우즈벡 최대 물류단지 조성 예정(현재 26,000m2 물류창고 운영 중)
  - \* UZUM 물류단지 1단계 계획 : '24.2월 착공(112,000m2), 최종 50만m2 조성 목표

- East Telecom(KT) '21년 온라인쇼핑몰 'Neva' 구축
  - '23년 4월 입주한 타슈켄트 신사옥 2층에 한국 상품 전시 오프라인 홍보관을 구축하여 O2O 플랫폼을 구성할 계획

## ▣ 진출전략 및 유망 분야

### • (온라인) 현지 유력 온라인 쇼핑몰 입점 마케팅

- ① 우즈벡 현지 유력 온라인몰 활용, 소비재 마케팅 확대
  - 현지 한국 상품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UZUM 등 우즈벡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하여 한국 소비재 프리미엄 마케팅 추진
  - 온라인 약국 플랫폼 서비스 등도 급성장 중 의약품, 화장품 등 의료·위생용품의 진출 루트로 활용

#### 〈서비스 중인 온라인 약국 플랫폼〉

연번	기업명	주요 제공 서비스	홈페이지
1	osonapteka	약국위치, 재고확인, 가격비교 등	osonapteka.uz
2	999	의약품 온라인 판매	apteka999.uz
3	ArzonApteka	약국위치, 가격비교, 의약품 정보검색 등	arzonapteka.uz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 ② 우즈벡 진출 유력 플랫폼 활용, 한국 소비재 공동 진출 모색
  - East Telecom(KT)가 구축한 Neva 등 우리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 한국 소비재 공동 진출 추진

### • (오프라인) 현지 진출 및 고려인 유력 무역상사 협력 마케팅

- 우즈벡 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인 유력 무역상사가 다수 활동 중으로 통관, 결제, 파트너 발굴 등에 협력 가능성 다대
- 또한 우즈벡 고려인비즈니스 클럽을 결성해 70여 개의 고려인 비즈니스맨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 중으로 동 클럽과 진출 협력도 모색 가능

#### 〈재우즈벡 주요 한인 무역상사〉

연번	기업명	주요취급품목	연번	기업명	주요취급품목
1	L&S 글로벌	생활용품 종합	6	휴미테크	가전 등
2	한라스틸	건설기자재	7	Kim and Brother	종합
3	TOW CO	건설중장비 등	8	Korea Solution	플랜트설비
4	MMS	건설기자재	9	KoUzGroup	태양광, 스틸
5	GST 코리아	건설중장비 등	10	DAE JONG	식품, 생활용품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 3-3. 기술·지식교류 활용 진출 강화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ODA) 우즈베키스탄은 2010년, 2015년 우리나라의 ODA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되어,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가장 큰 규모의 ODA 수원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
  - \* 한국의 우즈벡 ODA 공여 : 384.3백만 USD('20년까지 누계, 중앙아 전체 ODA 중 77.7%)
- (KSP) 우즈벡 정부의 한국 고성장 경험 공유 수요가 높으며, 이에 다양한 지식교류사업 추진 중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KOICA를 중심으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가 활발히 추진 중
  - 직업훈련원, 교육센터 등 사회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친환경 재건을 위해 아랄해 위기 대응 사업 등도 추진
-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의 지식공유프로그램(KSP)이 진행되고 있음
  - 현재 우즈벡 건설공공주택부가 신청한 지역난방시스템 개선에 대한 정책 및 기술 자문 사업이 진행, 우리 지역난방 시스템의 우즈벡 진출 여건 마련

#### 진출전략 및 유망 분야

- (수요 개발) 공여사업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AI 등 신기술 현지 진출 확대
  - AI와 같은 최신 기술 적용을 위해서는 우즈벡 현지 수요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여사업 형식으로 교육세미나 개최 등과 마케팅 병행
    - \* (예시)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X-ray AI판독 SW를 우즈벡 군병원에 무상 설치 및 무료 이용권한 제공, 군병원 판독데이터 축적 후 민간병원 대상 세미나 개최 지원
- (수요 확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의 적정기술을 우즈벡에 전파하고, 관련 수요를 확대시켜 시장 확보
  - 스마트팜 등 신기술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설치 이후 관련 기술을 이해하고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현지 기술 인력 양성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
  - 지리정보시스템, 스마트 온실(그린하우스), 농업용 드론 등이 유망

#### (예시)우즈벡 농업분야 공적원조사업

- 우즈베키스탄 스마트팜 산업기술혁신센터 조성 지원(ODA, 2022-2026년, 170억 원)
- 첨단 온실 및 저장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농업교육센터 설치사업(ODA, 2021-2025년, 18억 원)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과채류 고품질화 스마트팜 사업(ODA, 2022-2026년, 45억 원)

### 3-4. 물류·제조업 투자 진출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경쟁력 확보) 높은 물류비용으로 수출 시 가격경쟁력 확보 어려움. 관세, 진입장벽, 인건비, 물류비용 등 고려 시, 현지생산으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구조
- (판매거점) 중앙아 중심 위치, 최대 인구 보유 등의 특성으로 현지생산/인근국 판매 거점으로 활용 가치가 높음  
\* CIS FTA('12년 발효) 활용 시 인근 CIS 지역으로 무관세 수출 가능
- (정부 정책) 우즈벡 정부, 외국인투자유치를 국가 발전 위한 전략의 주요 과제로 채택하고, 외환 자유화, 면세혜택, 인허가 절차 완화, 회계제도 개편 등 투자 친화적인 여건 조성 중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대러 제재 확대로 한국제품들의 러시아향 물동량 대폭 감소 및 중앙아 우회 증가  
- 러시아→중앙아 남향 물량은 줄고, 중앙아향 물량 및 중앙아→러시아 북향 물량 증가 ⇒ CIS 물류 거점이 모스크바에서 알마티와 타슈켄트로 전환 중
- 러-우 사태, 중앙아 거점 확보 등을 배경으로 최근 우즈벡 투자 진출 움직임  
\* (자동차부품) Y사, 러시아 공장 철수 및 우즈벡 진출 / D사, ADM과 합작법인 설립 등  
\* (변압기) K사, 변압설비 공장 건설 검토 / (식품) D사, 우즈벡 식품제조공장 진출 검토 등

#### ■ 진출전략 및 유망 분야

- (물류창고) 최근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하고, 온라인 쇼핑몰 이용이 급증하면서, 물류 창고를 신축하거나 확대하려는 수요가 크게 증가 중
- (세제혜택 분야)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산업 분야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면세혜택 부여 (소득세, 재산세, 인프라세, 중소기업영업을 위해 통합세 등)

〈외국인직접투자(FDI)시 세금 면제 대상 분야(일부)〉

연번	분야
1	전자, 컴퓨터 부품 및 컴퓨터 기술
2	경공업(면, 모, 편직물, 혼합직물, 속옷, 니트, 양말, 신발 등)
3	실크(원단, 완제품 생산)
4	건축자재('05.3.24일 제정된 대통령령 UP-3586 부록 1a에 해당하는 품목)
5	식품(담배, 주류를 제외한 현지 원재료를 가지고 만든 가공식품)
6	생선 가공 및 저장
7	화학
8	석유화학
9	제약(동물약품 포함)
10	포장 자재
11	대체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소 건설
12	전기합금철 및 금속 제조
13	기계 엔지니어링(트랙터 등 농기계 생산 등)
14	기계 공구
15	유리, 도자기
16	관광(호텔·여행업, '17.6.1일부터 혜택 적용)

주: 전체 조세감면 대상 분야 리스트는 <https://www.lex.uz/acts/561818> 에서 확인 가능  
 자료원: 우즈베키스탄 투자 포털(invest.gov.uz)

- (의료) 수입 의약품 대체 및 현지 의약품 개발 장려를 위해 은행 대출 및 해외수출 시 현지 인증 등록비용의 50% 지원책 등 활용

우즈베크 국산화 우선 의약품

- 항생제(Antibiotics)
- 내분비계 질환 치료 의약품(Medicines for the treatment of pathology of the endocrine system)
-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 항바이러스제(Antiviral drugs)
- 위장 질환 치료 의약품(Medicines for the treatment of pathology of the gastrointestinal tract)
- 면역생물제(Immunobiological drugs),
- 호흡기 질환 치료 의약품(Medicines for the treatment of pathology of the respiratory system)
- 심혈관 질환 치료제(Medicines for the treatment of cardiovascular diseases)
- 항암제(Medicines for the treatment of cancer)
- 소아 결핵 감염의 조기 발견을 위한 Diaskin 검사제(Diaskin tests for early detection of tuberculosis infection in children)

- (건자재) 부피가 큰 건자재의 경우 현지생산을 통해 물류비 절감 등 이점 다대
  - 공조닥트를 제조하는 D사는 '19년 우즈베크 법인 설립과 동시에 현지생산을 개시하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에도 수출하고 있음

## 첨부 1

##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HS Code	870380	수입관세율(%)	15
전기차 (EV)	수입액('22/US\$백만)	70.0	대한수입액('22/US\$백만)	1.5
	선정사유	관세, 소비세 면제 등 정부 지원 정책 다양함		
	시장동향	전기차 수요 매년 증가		
	경쟁동향	중국, 대한민국, UAE 등		
	진출방안	전문 유통상을 통한 시장진출, 제품 테스트 필수		
품목명	HS Code	851531	수입관세율(%)	0
용접기	수입액('22/US\$백만)	2.8	대한수입액('22/US\$백만)	0.3
	선정사유	자동차 조립생산 증가, 관련 산업재 수요 증가		
	시장동향	한국산 용접기가 수입 시장의 27% 차지		
	경쟁동향	중국, 이태리, 튀르키예 등		
	진출방안	우즈벡 제조기업들의 자동차부품, 철강 등 인콰이어리 발굴 시, 유관 산업재 추가 수요를 모니터링하여 추가 수출 기회 창출		
품목명	HS Code	300490	수입관세율(%)	0
의약품	수입액('22/US\$백만)	952.5	대한수입액('22/US\$백만)	1.3
	선정사유	큰 시장잠재력을 보유, 한국산 의약품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음		
	시장동향	중앙아 최대 인구, 의료 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시장 규모 지속 확대		
	경쟁동향	인도, 러시아, 튀르키예 등		
	진출방안	우즈벡 정부의 현지 의약품 생산 우대 정책 등을 활용, 현지 생산 거점 확보, 현지 공동 연구 등을 통한 현지 진출		
품목명	HS Code	330499	수입관세율(%)	30
화장품	수입액('22/US\$백만)	16.2	대한수입액('22/US\$백만)	5.2
	선정사유	인구 증가, 포스트코로나로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 화장품 수요가 커지고 있음		
	시장동향	스킨케어 및 다양한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경쟁동향	러시아, 폴란드, 프랑스, 중국, 한국 등		
	진출방안	Beauty 전시회 참가를 통한 유력 바이어 발굴, 급성장 중인 우즈벡 온라인 쇼핑몰 입점 마케팅		

##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품목명	항목	내용
의료서비스	선정사유	중양아 최대 인구, 의료 환경 개선에 대한 우즈베크 정부의 높은 정책 의지 등으로 의료시장 규모 지속 확대
	시장동향	2020년 기준, 1인당 연 의료지출액은 89달러이며, 2024년까지 연 10%씩 성장할 전망
	경쟁동향	해외의료기관
	진출방안	현지 의사 및 병원과의 협업을 통한 시장 진출, 수출입은행 EDCF 활용 현지 병원설립 프로젝트와 연계, 한국 의료기자재 진출 파이프라인 확보
품목명	항목	내용
소프트웨어	선정사유	정부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도입, 전자 신분증, 전자 인보이스 발행 의무화 등으로 IT 기술과 소프트웨어 수요 증대
	시장동향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
	경쟁동향	UAE, 중국, 홍콩, 싱가포르
	진출방안	개발원조사업(ODA)를 통한 진출
품목명	항목	내용
IT서비스	선정사유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 확대
	시장동향	온라인 주문, 배달, 은행 앱 등 서비스 보급
	경쟁동향	중국 등
	진출방안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 서비스 자문 등
품목명	항목	내용
교육콘텐츠	선정사유	한국형 유치원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도입, 이러닝 콘텐츠 개발, 도입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
	시장동향	자체적으로 개발 중이나 역량이 높지 않음
	경쟁동향	-
	진출방안	정부 기관, 공기업과의 협력 사업 개발, 이러닝 콘텐츠 공동 개발, 기술 전수 등

### 첨부 3

##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 ① 「중앙아시아 플랜트수주지원센터」운영 (연중) (KOTRA 타슈켄트)

- 주요 내용 : 중앙아시아 5개국 관할,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 지원
- 세부 사업 : 수주 활성화 방안 워크숍 개최, 유망 프로젝트 소개 웨비나 개최, 현지 발주처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 발굴, 시장조사 등

#### ② 현지 전시회 연계 전시상담회

- 산업 분야 : 건축자재(UzBuild), 보건·의료(TIHE), 신재생에너지(Power Uzbekistan) 등
- 주요 내용 : 현지 전시회 연계하여 상담회 개최 및 사후 관리

#### ③ 전략산업 분야 전문 무역사절단 상담회 개최

- 산업 분야 : 건축자재, 자동차부품, 뷰티 소비재 등 전문사절단 유치
- 주요 내용 : 1:1 비즈니스 수출상담회 및 사후관리

시기(잠정)	무역사절단명	비고
2월	우즈벡 건축/건설 전략무역사절단	오프라인
5월	광주 중앙아시아 해외시장개척단	오프라인
5월	전남 에너지 전략무역사절단	오프라인
6월	중앙아시아 자동차부품 전략무역사절단	오프라인

#### ④ 우즈벡 유통망 입점 사업

- 주요 내용 : 우즈벡 최대 유통망 UZUM 입점
- 세부 사업 : 입점 설명회 및 온라인 판촉전 등

#### ⑤ 국내 수출상담회·전시회 방한바이어 유치 (연중)

- 주요 내용 : 국내 상담회·전시회 참가희망 우즈벡 바이어 발굴 및 방한지원
- 참고사항 : 한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출 유망산업 분야\*

\* 서울국제식품전(식품), 대전국제농업기술전(농기계), GTT·KOAA Show(자동차부품) 등

⑥ 온라인 화상상담회 개최 (연중)

- 주요 내용 : 국내 중소기업(한국)과 바이어(우즈벡) 간 원격 화상상담 주선
- 참고사항 : 바이오퍼(인콰이어리) 발굴과 연계, 신규수출기업 등 중점 지원
- \* 본사 협업 및 무역관 자체 기획 등, 연간 주기적으로 시행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우즈베키스탄 상원(올리 마즐리스) 선거	2024	미정
UN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보장 전략회의 개최	2024	미정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최저임금 인상	2024	잠정
인구조사 실시	2024	잠정
한-우즈벡 FTA 협상	2024	진행중
WTO 가입 추진	2024	WTO 가입을 위한 법령 개정 ('23.8)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4 우즈베키스탄 농업 전시회	2024.3.	Agroworld
2024 우즈베키스탄 건축 전시회	2024.2.	UzBuild
2024 우즈베키스탄 식품전시회	2024.3.	UzFood
2024 우즈베키스탄 의료메디컬 전시회	2024.4.	TIHE
2024 우즈베키스탄 뷰티 엑스포	2024.6.	Beauty Expo Uzbekistan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한정선	과장	타슈켄트무역관	+998-78-140-0217	ktrnjs88@kotra.or.kr

2024  
우즈베키스탄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ISBN : 979-11-402-0839-5 (95320)